

제7회 「어도(魚道) 사진·숏폼 공모전」 개최

- 하천에 설치된 물고기의 생명길, 사진·숏폼으로 담아 응모하세요 -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제7회 어도사진·숏폼 공모전」 응모작품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아름다운 어도 사진과 60초 이내 짧은 영상을 통해 어류의 이동통로이자 하천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도(魚道)*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어도(魚道)는 강과 하천에 설치된 보나 댐(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이다.

공모 부문은 드론촬영·일반카메라 등 촬영기기별 구분되었던 사진부문을 하나로 통합한 ▲아름다운 어도와 어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진분야와 ▲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이 담긴 숏폼(영상)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뉘 진행되며, 분야별 3점까지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숏폼 부문에서는 작품을 본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인 ‘#어도, #물고기길,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를 넣어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게시물 URL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을 꾸려 응모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오는 11월에 주제와의 부합성, 작품성,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24점을 선정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함께 총 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석 어촌수산처장은 “공사는 국내 유일의 어도 전문기관으로서 지자체와 함께 매년 기능개선이 필요한 어도를 개보수하여 단절된 하천 생태계 연결과 내수

면 수산자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어도 공모전에 ‘숫폼부
문’을 새롭게 도입한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수산처	책임자	부 장	김영득 (061-338-6131)
	수산해양부	담당자	대 리	이지은 (061-338-6134)